

11/25/18

설교 제목: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2 장 1-23 절

###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 (에 2: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절관주** 에 1:19
- (에 2:2)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절관주** 왕상 1:2
- (에 2:3)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절관주** 에 2:9, 에 2:12
- (에 2:4)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 (에 2:5)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 (에 2:6)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 (에 2:7)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 (에 2:8)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절관주** 에 2:3
- (에 2:9) 헤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 (에 2:10)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절관주** 레 26:36

- (에 2:11)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 (에 2:12)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 (에 2: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 (에 2:14)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 (에 2: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 (에 2:16) 아하수에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 (에 2: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 (에 2: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절관주** 에 1:7

###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

- (에 2:19)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절관주** 에 3:2
- (에 2:20)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절관주** 에 2:10
- (에 2:21)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 (에 2:22)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절관주** 에 6:2

(에 2:23)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본문은 에스더서 도입부입니다.

본문에는 두 건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폐위된 왕후의 자리에 유대 처녀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읽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지 3-4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바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준비를 마치자 온 나라의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아 놓고 180 일간의 큰 잔치를 벌이며 최종 점검까지 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은 16 만 병력과 1200 척의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로 진격해 질풍노도와 같이 그리스 북부와 중부를 휩쓸고 남부까지 진격해 들어가 아테네에 이르러 최후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전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인데 여기서 뜻밖에도 바사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사는 그리스 정복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사랑했던 왕비도 폐위시키고 전쟁에도 패하고, 참으로 외롭고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에 2: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한 순간의 객기로 왕비를 내쫓은 것이 후회되기도 하여 당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조서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왕의 모습을 지켜 보는 신하들은 안절부절입니다.

대책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왕이 와스디 왕비를 다시 불러들이는 날이면 자신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신하들이기에 선수를 칩니다.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 새 왕후로 들이 앉히자는 것입니다.

(에 2:2)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에 2:3)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에 2:4)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젊고 아리따운 처녀랑 결혼하라는데 마다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 왕비를 맞기로 합니다.

드디어 왕후를 간택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왕이 왕후를 간택한다는 조서와 명령을 반포합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산 성으로 모여듭니다.

이들 처녀들 중 에스더도 끼어 있었습니다.

(에 2:5)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에 2:6)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에 2:7)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에 2:8)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에 2:9) 헤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곤  
주며 또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가족 관계 그리고 유대인인 그들이 이곳 바사 땅에서 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드개는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개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사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6 절에서 모르드개가 잡혀왔다고 했는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 왔을 때가 BC 597 년이고  
이때는 BC 479 년인 것으로 보아 모르드개가 잡혀 온 것이 아니고 기스가 잡혀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에스더의 부모 그러니까 모르드개의 작은 아버지 부부가 어린 딸 에스더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개가 어린 에스더를 데려다 딸같이 길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때 마침 왕이 왕후를 간택한다는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아름답게 잘 자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고자 그녀를 데리고 이곳 수산 궁을  
찾았습니다.

수산 궁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눈에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에스더는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성품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비를 뽑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에 2:12)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 2: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에 2:14)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전국에서 뽑혀 온 처녀들은 왕에게로 나가기 전 후궁에서 일년을 준비합니다.

처음 여섯 달은 물약을 쓰고 다음 여섯 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차례가 되면 하고 싶은대로 맘껏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 하루 밤을 보냅니다.

이 때 왕의 눈에 들어 간택이 되면 왕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후궁으로 지내야 합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 2: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 2:16) 아하수어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 치장하기 위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내어 주어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내시가 정하여 준 것만으로 치장을 하고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이토록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 눈에 돋보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수많은 처녀들을 물리치고 왕의 간택을 받게 됩니다.

(에 2: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에 2: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는 왕 앞에 은총을 얻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웠습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로 간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사건이 끝나고 이어서 두 번째 사건 즉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에 2:21)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에 2:22)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뢴지라

(에 2:23)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자 모르드개는 수산 성에서 작은 관직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관리들이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공무도 보고 재판도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평시와 다름없이 대궐 문 앞에 앉아서 공무를 보다가 우연히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 일이 사실로 밝혀져 박단과 데레스는 사형을 당했고 모르드개의 이름은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이 암살당할 뻔한 일이었는데 모르드개의 공로로 그 큰 화를 모면했다면 나라 전체에 이 일을 알리고 모르드개에게도 큰 상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터인데 그저 음모를 모의했던 박단과 데레스 두 내시가 처형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사건의 위중함에 비해 너무나 조용히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이 사건은 후에 모르드개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음모했던 원수 하만을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역전극을 펼쳐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왕후 와스디가 교만하여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왕이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도 왜 하필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왕후 자리를 차지해야만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런 의문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실부모하여 사촌 오라버니 손에서 자란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구나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관리들 가운데 왜 하필 모르드개가 왕의 내시들의 음모를 알아내어 왕 앞에 공로를 세웠어야 했는지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왕이 운이 좋아 음모가 미리 밝혀졌고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구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들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바사에 남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위험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미리 깔아 놓으신 포석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후에 모르드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하만을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개가 바사 제국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사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데 신실한 자들을 끌어들이어 함께 동역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자들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 택하신 자들의 인생 곳곳에 복선을 깔아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든 그렇지 않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스쳐가는 일 하나 하나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행하십시오.

후에 그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디딤돌로 쓰여질 것입니다.